

브라질 — 전기회사의 민영화와 전력손실 문제

1. 라이트 전기회사의 매각

리오다스페드라스의 빈민촌인 슬럼가에는 임시 대용물 전주들로부터 몇 천 채의 넘어질 듯한 붕괴 직전의 집들 사이사이로 전선이 서로 교차하면서 얽혀 있다. 이 불법적인 전선의 접속은 다채로운 여러 색의 링귀니 국수가 거미줄처럼 엉켜 있는 것을 연상하게 하며 빈민가로 알려진 리오데자네이루의 파베라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 도시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라이트 전기회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전기를 도둑질 당하고 있다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와 같이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끌어들이 전선들의 앞날의 운명은 불확실하다. 지난 5월 21일에 브라질정부는 유사 이래 최대의 민영화 계획으로서 라이트사 지분의 55%를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AES, 휴스턴의 휴스턴 인터스트리 에너지 그리고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에 22억 6천만달러를 받고 매각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불법 전선 연결은 새 전력회사의 소유주에게 미묘한 사회적 및 경제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게 되었다. 라이트는 비효율과 기술적인 문제를 그리고 도전 등으로 인해 구입하는 전기의 16%를 잃고 있으며 1995년에는 약 1억달러의 손실을 입어 재정적으로 회사를 허우적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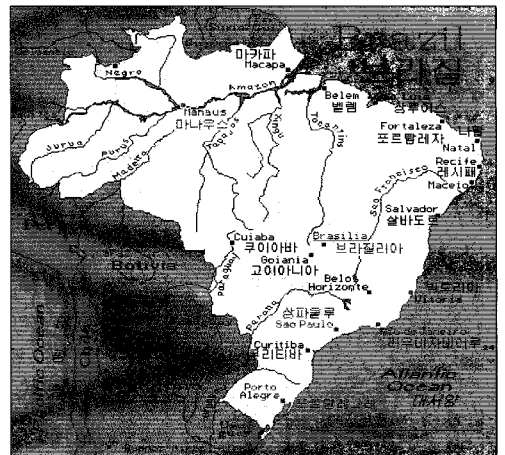
게 만들었던 것이다. 손실전력 중에서 얼마만큼이 도둑질당하고 있는지 확실하게는 모른다. 그러나 에너지 분석가들은 아마도 16%의 손실 중 절반 이상이 도전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 16%의 전력 손실

라이트의 새 주인이 된 다국적 컨소시엄은 빈민가 주민들의 인입선을 철거하든지 또는 그들로 하여금 전기요금을 납부하도록 시도한다는 것이 공공 관계에 큰 재앙을 초래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몇몇 브라질 사람들, 특히 빈민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이미 국가 소유의 기업을 매수한 외국 회사들에 대하여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기도 하다. 컨소시엄은 현재로서는 라이트의 요금조정 체계를 재정비하고 작동하지 않는 계량기를 점검하는 일에 노력을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사람들의 마지막 남은 한푼의 돈까지 쥐어짜 내려고 시도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AES 브라질의 헨리 아스클러 사장은 말하고 있다. 아스클러 사장은 외교 수완을 발휘하듯이 도둑맞은 전기에 대한 중요성을 낮추어 말하고 있는 것이다. "파베라의 저소득 주민들은 전기기구를 몇 가지 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거기에서는 그다지 많은 전력의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며 또 다른 성명서에서 전기회사의 새 주인은 파베라

의 문제에 대하여 "연구"하겠다고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아르헨티나에서는 EDF와 휴스턴 인터스트리 에너지 모두 1990년대 초에 전에는 국가 소유였던 부에노스 아이레스 전기회사의 일부를 매입한 바 있다. 그후 그들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력이 누설되는 근원을 찾아낼 수 있었으며 손실을 절반으로 감축시킬 수가 있었다. 그러나 리오의 파베라는 그 대부분이 마약 불법 거래자들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으며 기관총으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브에노스 아이레스의 빌라미제리아보다 훨씬 위험한 것이다. 파베라에 대한 단전은 격렬한 항의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누가 파베라 속으로 들어가서 '여보시오 당신들은 우리 에너지를 도둑질하고 있지 않소?'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라고 상파울로의 시티은행의 분석가인 안토니오 루이스 드 카스트로씨는 말하고 있다.



해외전력사정

3. 전기의 도둑질에 대한 대책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파베라 거주자들은 합법적인 전기 사용에 대하여 한 달에 몇 달러 정도를 지불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지 않고 있다. 시당국의 허가 없이 수 천명의 사람들이 조그만 판잣집들을 지었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납부한다는 것은 합법적인 거주권에 대한 요구를 뒷받침해 줄 수도 있을 것이며 거주자들의 공공 서비스에의 고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안전 문제가 있다. 리우다스페드라스 주민인 마리아와 모니카 제일스는 어린아이들이 맨발로 위험한 전깃줄의 접속 개소 아래에서 뛰어 다니는 것을 보면서 라이트 전기회사가 정식으로 전선을 연결하면 사고가 훨씬 적어질 것이라는 데에 동의한다.

리오데자네이루는 주정부 지사가 앞장서서 “자본주의자로서의 거듭나기”라고 알려진 몇 십년간의 경제적인 쇠퇴로부터 사태를 뒤집어 놓기 위한 시도에 착수하

였다. 주지사 마르셀로 알렌카와 그의 아들이며 주 기획장관인 마르코 오렐리오 알렌카씨는 주의 은행, 지하철 그리고 가스사업 등을 포함한 자산을 매각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마흔 살의 마르코 오렐리오는 “2년내에 주 소유의 인프라스트럭처는 모두 민간 소유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주정부 계산에 의하면 공공 자산의 매각으로 모두 27억 달러를 받게 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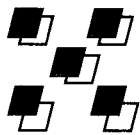
4. 모든 주의 기간기업체 매각

브라질의 가장 진보적인 주가 되겠다는 리오의 아이디어는 1년전 만해도 어리석고도 여처구니없는 것으로 보였다. 알렌카 주지사를 1980년대에 이 도시의 경제적인 감퇴를 재촉하게 된 것으로 리오의 상업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게 된 좌익 인기주의자인 전지사 레오넬 브리졸라씨와 아주 밀접하게 결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었다. 1995년 1월 1일에 페르난도 헨리크 카르도소 대통령이 취

임하였을 때 “이것은 마치 분수령이 물을 갈라놓는 것처럼 자국을 만들게 됨으로써” 과거의 국가 통제주의자를 미래의 자유 시장으로부터 분리시키게 되었다고 마르코 오렐리오씨는 말한다.

주지사의 정책 전환에 또 다른 동기가 될 수 있는 것은 50억달러의 채무와 작년도의 1억 7100만 달러에 이르는 예산결손인 것이다. 심지어는 브라질의 국민들이 그렇게도 사랑하는 축구까지도 알렌카씨는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 리오의 역사적인 마나카나 스타디움으로서 한때 거의 20만명까지 수용할 수 있었던 웅장하고 서사시적인 이 스타디움은 이제는 안전 문제로 9만 6천명만을 수용할 수 있게 되기는 하였지만 이 스타디움이 내년에는 매각되어 민영화될 것으로 보인다. 리오에 있어서는 그것은 마치 대성당을 팔아 치우는 것과 거의 같은 충격적인 대사건인 것이다.

(자료 : 「비즈니스 위크」 1996.7.8.)



말레이시아 — IPP들의 등장과 TNB의 고전

1. 1992년의 대 정전사고와 1995년의 송전케이블의 화재

1992년 9월 29일 말레이시아 반도의 기간 송전 그리드의 주요 전력 접속점에 대한 낙뢰의 강타는 조용하기만 하던 정돈된 말레이시아반도에 돌연 급격한 변

화를 불러일으켰다. 정전은 공장, 컴퓨터 그리고 교통신호 등의 기능을 멈추게 하였으며 맹렬한 국민 대중의 항의의 부르짖음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국가 소유의 전력 독점기업체인 테나가 내셔널사(TN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위협까지 제기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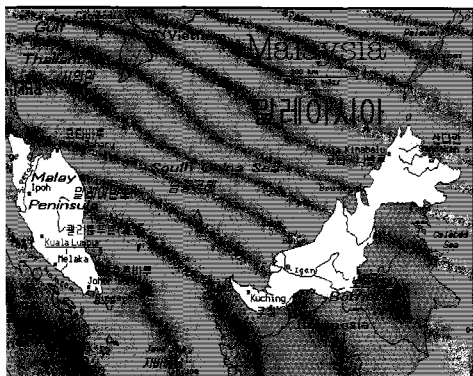
되었다. 조사 결과 TNB의 태만 행위가 없었음은 확인되었다. 그러나 전력의 급격한 증가에 대처할 수 있는 예비전력을 유지하는데 실패하였음을 밝혀 내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TNB의 실책의 발견은 TNB의 명성에 손상을 입히게 되었지만

상대적으로 말레이시아의 독립계 발전사업자(IPP)들에게는 하느님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2002년까지 말레이시아를 선진국으로 만드는 목표에 보조를 맞추기 위하여 정부는 전력 사업 부문의 민영화에 대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된 것이다. 또한 TNB로 하여금 팔라뎀푸르 주식 거래소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그러나 그리 오래지 않아 TNB는 다시 일이 꼬이게 되었다. 1995년 6월에 페낭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송전계통의 전력 케이블의 화재로 20일간이나 실질적인 불편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2. IPP들의 등장

이제 모든 나쁜 일들을 과거지사로 만들어 준 IPP들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현재까지 모두 합쳐서 열두 개의 독립 발전사업자가 면허를 받았으며 그들 중의 다섯 개는 이미 가동중에 있다. 이들은 말레이시아 반도 전체의 소요 전력의 약 30%를 공급하고 그 나머지는 TNB 자체의 생산분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TNB는 이 말레이시아 반도의 유일한 배전 사업자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말레이시아의 미래의 전력수요에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바쿤 IPP의 등장이 그 해답이 될 것이다. 사라와크주에 위치하고 있는 60억 달러의 댐 프로젝트는 정부로부터 사업 착수 허가를 받았으며 환경주의자들의 법정투쟁에도 불구하고 2002년에는 전기를 생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나라 유사 이래 최대의 발전 프로젝트인 240만kW의 댐은 현지 기업과 스위스-스웨덴의 엔지니어링의 거대 기업인 ABB 아세아 브라운 보베리를 포함한 국제 컨소시엄에 의해서 건설될 예정이다. 바쿤은 사라와크의 실업계 거물인 텅 팩 키잉의 소유인 에크란사에 의해서 개발되고 운영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바쿤 IPP와 전력 구입의 의무

TNB는 바쿤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70%를 구입하게 되며 세계에서 가장 긴 해저 전력케이블을 경유해서 말레이시아 반도로 이 전력을 운반해 올 계획으로 있다. 처음 5개년 동안은 TNB는 현재까지 어떤 IPP에게 지불한 요금보다도 비싼 kWh당 약 6.6미국센트로 바쿤으로부터 전기를 구입하게 될 예정이다. 그 다음의 25년간은 에크란이 댐과 발전소를 운전 및 관리하게 되며 이 기간 동안에는 전기요금이 kWh당 거의 6.8 센트로 인상될 예정이다.

새로운 세기로 옮겨가기 전까지 말레이 반도는 소비전력보다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게 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이 해에는 총발전설비 1011만kW에 첨두수요 706만 3천kW로서 43%의 안정된 예비마진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정부는 2000년에서 2005년까지에 예비마진이

대폭적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부족용량은 바쿤 프로젝트와 7월 1일에 가동하게 되는 세가지 에너지 벤처의 전력 프로젝트에 의해서 메꾸어질 것으로 보인다.

4. 송배전 설비에의 투자 확대

TNB는 말레이 반도의 송배전 사업에도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이 계획에 의하면 2000년까지 28억달러 내외를 투자하여 146개소의 변전소를 건설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TNB 경영진의 아니 아로프 회장은 "우리는 공급 전력의 질과 신뢰도를 더욱 높이며, 새로운 고객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다.

TNB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TNB의 수입은 증가하는 IPP들의 경쟁으로 침식당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TNB에게 TNB 자체의 생산비용보다도 높은 가격으로 다섯 개의 가장 큰 IPP들로부터 역지로 전력을 구입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IPP들과는 달리 TNB의 많은 발전소들은 설비가액이 완전히 낮아졌기 때문에 kWh당 평균 3.4센트의 비용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TNB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kWh당 5.4센트에서 6.2센트까지를 지불하면서 다섯 개의 IPP들로부터 전력을 구입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5. YTL와의 전력 구입 계약

더구나 TNB는 가장 큰 IPP들 중의

해외 전력사정

하나인 YTL사로부터는 구입한 전력을 판매하지 못할 경우에조차도 발전전력의 72%를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다. YTL는 말레이시아의 첫 IPP였고 또한 이 회사의 매니징 디렉터인 프란시스 예오씨는 말레이시아 수상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으며 역척같은 협상 대상자였기 때문에 TNB로 하여금 21년간에 걸쳐서 전력을 구입하는 구입하지 않든 대금을 지불하여야 하는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른 네 개의 IPP들은 TNB가 판매한 전력에 대해서만 대금을 지불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아직 전력회사는 전력생산의 고정비를 보상하는 용량 부담금을 지불할 의무가 남아 있다.

TNB는 전력 구매계약에 대하여 분명히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이것을 폐지 또는 철회할 수 있는 아무런 도리가 없는 것이다. 아니 회장은 "양측은 모두 사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 구입자, 팔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 판매자의 관계를 확립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고 말한다. 또 "만일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같이 일을 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따르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여 말하고 있다. 최근 몇 개월간 TNB는 다부지게 행동하고 있다. 예크란이 제의한 전력판매 합의서를 그들이 너무 비싸다고 느꼈기 때문에 두 번이나 거절하였던 것이다.

6. 전기요금 인상의 좌절

제임스 카펠사의 분석가인 테오 록 린

씨는 "IPP들은 TNB의 이익에서 대가를 징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1995년 4월에 정부는 TNB의 물가 상승률을 포함하는 여러 인자가 관련되는 공식에 기초를 두는 전기사용자에 대한 자동적인 전기요금 인상 요청을 거부하였다. 이 요구는 총선거 직후에 제기되었으며 국민 대중의 분노를 유발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로 거부된 것이 분명하다. 이와 같은 결과로 TNB의 세전 이익이 전 해의 7억 9200만달러에서 1995회계년도에는 6억 5400만달러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3월에 정부는 말레이 반도 내의 전력사용 고객에 대하여 8.3%의 요금 인상을 승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평균 요금은 kWh당 8.2센트에서 8.7센트가 되었다. 그렇지만 TNB가 요구한 kWh당 9센트에는 못 미치는 가격이다. 새로운 전기요금은 TNB의 매출액을 1995년의 27억 4천만달러에서 금년에는 30억달러를 넘어서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TNB의 주식은 칼라룸푸르 주식거래소에서 과거 2년간에 절반 가격으로 하락하여 1994년의 8.28달러에서 현재는 4달러를 약간 상회하는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7. TNB의 불만과 YTL의 대응

아랍·말레이시아의 증권 분석가인 리 강린씨는 "단기간내에는 TNB가 IPP들의 이익 수준을 따라잡을 방도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주식시장의 주가지수가 30% 이상 상승하여도 TNB는 단지 10%의 영향을 받을 뿐이다"라고 덧붙여 말한다. 그 동안에 IPP들의

주식은 이들 회사의 유리한 전력판매계약에 투자자들이 매력을 느낌으로써 주식가격이 치솟았다. 투자에 대한 15%의 수익률이 기대되고 있는 것이다.

IPP들에 대한 TNB의 불만을 어떻게 정당화시킬 수 있는가? 분석가들은 만일 TNB가 직접 모든 IPP들의 발전소를 건설하고 통제한다고 하더라도 전력생산의 비용은 대체적으로 같아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YTL의 예오씨는 그가 정부로부터 너무 유리한 거래를 받아냈다는 널리 퍼진 소문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역도 또한 마찬가지로이다"라고 그는 말한다. "만일 우리가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면 우리는 TNB에게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사람들은 항상 우리가 TNB를 쥐어짤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나는 TNB가 가장 유리한 거래를 이룩한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그는 덧붙여 말하고 있다.

연도	사용전력량 (TWh)	첨두수요 (MW)	설비용량 (MW)	과부족용량 (MW)
1996	37.0	9,535	10,110	575
1998	45.6	11,714	12,548	834
2000	55.0	14,105	13,988	-117
2002	66.3	16,936	13,998	-2,948
2004	79.5	20,258	15,588	-4,6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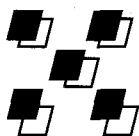
8. 그래도 밝은 TNB의 앞날

말레이시아의 전력수요는 14% 내지 15%의 증가율로 신장하고 있고 2000년까지에는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TNB는 분명히 이 활동영역에서는 가장 큰 사업자인 것이다. 페레그린 리서치의 히삼 햄단씨는

“TNB의 수입은 단기적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빈약할 것이다. 그러나 하강측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IPP

들은 해가 햇볕을 비치고 있을 동안에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거대 전력 회사가 그래

도 주도권을 잡고 전력 사업계를 선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자료: 『아시아 워크』 1996.7.12)



중국 — 전력 투자공사의 탄생

1. 새로운 법인체의 출범

과거 10년간 양 쉹씨는 전력성의 우 중충하고 불결한 본부에서 관료로서 근무하였다. 이제까지 그의 전문적인 직업 생활은 중국이 너무나도 절박하게 필요로 하고 있는 발전소 승인에 대해서 언제나 변함없이 정제된 끝없는 정치적인 논쟁에 대부분의 시간을 끔찍 못하고 참여하는 것으로 일관되어 왔다.

그러나 양씨의 운명은—그리고 중국 전력산업의 운명도 함께—이제 보다 나은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양씨는 베이징의 별 념의 1급호텔인 캐피탈 호텔의 멋진 특별 스위트룸에서 전력성의 새 법인조직체인 중국전력 투자공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 계열 법인체의 위임사항은 전력프로젝트에 대하여—견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진행을 순조롭게 촉진시키는 데에 있는 것이다.

2. 심각한 전력의 부족

중국전력투자공사는 이 나라의 매우 크고 나태한 관료체제를 보다 효율적인 조직체로 변모시키려고 시도하는 첫

번째 조치의 하나이다. 중국전력투자공사는 이미 새 발전소의 건설과 기존 발전소의 확장에 대한 거래를 마무리지음으로써 깊은 감명을 주는 발자국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 개혁주의자들은 한 개의 중앙정부 부서의 규제 및 상업기능을 분리하는 데에 대한 시험적인 노력이 중국의 다른 산업부문에서도 되풀이 적용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그와 같은 개혁이 전력산업계에서 보다 더 비판적이었던 곳은 아무데도 없었다. 중국사람들—전세계인구의 5분의 1인—은 앞뒤를 가리지 않고 필사적으로 더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1995년에 1820억kWh의 전력량을 생산하였으나—1990년 이후 66%의 증가—아직도 58억kWh의 전력량이 수요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에 있다.

3. 중국전력 투자공사의 출범

전력공업성에서의 변화는 1995년 6월의 중국전력투자공사의 신설을 무의미한 제스처에 불과하다고 비판적이었던 당초의 몇몇 인사들까지 포함해서 많은 외국 은행가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다.

베이징의 노무라 증권사의 수석 대표인 니시 후미야끼씨는 “우리는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간주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중국전력투자공사는 점점더 독립적이 되어가는 지주회사와 같다”라고 덧붙여 말하고 있다.

분명히 말해서 틀림없이 전력공업성은 해체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상업적인 방계조직에게는 서로 영향을 끌어당기게 될 것이다. 한가지 예를 들면 리 핑 수상의 딸인 리 샤오린씨는 중국전력투자공사의 장 명창 사장의 보좌역으로 있다. 그리고 외국 은행가들 사이에는 중국전력투자공사는 곧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 전력공업성의 쉬 다젠 장관은 곧 은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국에서 많은 사업경험을 가지고 있는 페레그린 투자지주 회사의 매니징 디렉터인 프란시스 퉁씨는 그가 은퇴하게 되면 그는 중국전력투자공사에 참여하게 될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4. 정부 자산의 이양

더욱이 전력공업성은 이미 핵심적인 자산을 이 상업기관으로 옮겨 놓았다.

해외전력사정

여기에는 합계 발전용량이 660만kW인 일곱개의 발전소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그 소유항목에는 국제 자금시장에서 차관을 주선하는 홍콩에 등록되어 있는 해양 자회사인 중국전력 국제지주회사와 국내 증권회사의 소규모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중국증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더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더 많은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양씨는 말한다. "권한 없이는 우리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공급할 능력이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는 덧붙여 말하고 있다.

전력공업성의 새 법인체 기구는 또한 광범위한 특권을 향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자금을 동원하고 해외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중국의 내각인 국무원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더욱이 발전소를 증권거래소에 상장시키고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5. 많은 특권의 향유

이 기관의 중요성에 대한 다른 지표로서는 이 기관은 외국회사와 조인트벤처의 파트너로서 일을 할 수 있으며, 거기에 투자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또한 국내 및 해외의 발전소에 대한 관리도 할 수 있다. 또한 무역 거래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전력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아직 몇몇 비평가들은 중국전력투자공사가 너무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 기관이 더 많은 전력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것보다

그 자체를 위한 권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더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기도 한다. "그들은 불공평한 경쟁의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있다" 라고 홍콩의 한 미국은행을 위한 프로젝트 자금공급 책임자는 말하고 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방심하지 못하고 있으며 아무도 그들과 경쟁할 수가 없다" 라고 덧붙여 말하고 있다.

6. 신속한 업무 처리

지난 4월에 외국 은행들의 컨소시엄—살로몬 브러더즈가 재무 자문역을 수행하는—은 중국전력 투자공사에 대한 6500만 달러의 차관제공에 합의하였다. 이 차관금은 중국 동부의 안후이성 우후시에 건설되는 12만 5천kW 석탄연소의 발전기 2기의 발전소를 확장하는데 투입하게 된다. 이 프로젝트는 중국에서 중국 중앙정부의 보증없이 처음으로 자금제공이 수행된 사례이다.

그리고 5월에 중국전력투자공사는 동북부 산둥성에 있는 6억 5천만달러의 리자오 발전소에 대한 3억 5700만달러의 한정지원 자금제공 계약에 합의한 바 있다. 중국전력투자공사는 이 프로젝트의 지분을 27% 소유하게 된다. 다른 참여자들로는 독일의 지멘스 AG와 이스라엘의 UDI가 있다.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자금제공 문제는 1년 내지 2년이 걸린다"라고 양씨는 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덟 달 이내에 해치웠다". 중국전력투자공사의 연계로 "나는 국무원 승인을 조속히 받아내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양씨는 말하고 있다.

7. 환영할 만한 변화로 간주

이제 중국전력투자공사는 중국 해안을 따라 발전소 프로젝트와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기설발전소의 재건설에 대하여 건설-운전-인수(BOT) 방식에 의한 투자를 위한 외국 파트너를 찾고 있다. 또한 하이난성의 야오멍 발전소와 안휘성의 핑웨이 발전소 확장사업을 위한 파트너를 찾기를 원하고 있다. 그리고 곧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프로그램에는 연속되는 전원개발자금 리스트도 포함되어 있다.

최소한도 그것은 공적인 예정안인 것이다. 그러나 중국전력투자공사의 내부 및 외부의 외국은행들과 전력산업 소식통들은 이 전력공업성의 법인체 기관은 그것을 운전하게 되는 주 전력회사로부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만큼 많은 발전소를 수중에 넣기 위한 감추어진 예정안을 별도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느리게만 움직이던 전력공업성과의 거래에 지쳐버린 외국 은행들은 중국전력투자공사의 등장을 환영할 만한 변화로 보고 있다.

(자료: 「파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1996.7.4)

